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

김 현 실

대구한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Impacts of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n Depression among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Daegu and Kyungpook Area

Kim, Hyun-Sil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egu Haany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living in Daegu and Kyungpook area, and to identify the impacts of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n their depression in this population. **Methods:** Research objectives were accomplished by conducting an anonymous questionnaire survey with 173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WIN 18.0. **Results:** Compared to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living in other areas,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living in Daegu and Kyungpook area had differences in their host country, level of education and spouses' occupation. The most frequently used social support programs for participants were classes in Korean language (Hangul), Korean culture and tradition and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omen who received higher levels of social support reported less depression and greater life satisfaction compared to women receiving lower levels of social support.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depression were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showing 27.8% of the variance in depression. **Conclusion:**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 the author suggests the necessity of developing social service program based on the women's characteristics and mental health needs.

Key Words: Depression, Social support, Satisfaction, Immigration, Wome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특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단적인 예가 다민족 국가화라 할 수 있다 (Kwon & Park, 2007). 이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세계

적 사회관계의 형성을 추구하는 세계화 현상에 근거하여 인구의 국가 간 이동이 가속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Lee, Kim, & Choi, 2005).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10여 년간 외국인 근로자 또는 국제결혼을 통한 해외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 있는 한국인 남성과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여성 간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

주요어: 우울, 사회적 지지, 만족도, 이주, 여성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m, Hyun-Sil, Department of Nursing, Daegu Haany University, 165 Sang-dong, Susung-gu, Daegu 706-060, Korea. Tel: 82-53-770-2282 (office), 010-6406-2015 (CP), Fax: 82-53-770-2286, E-mail: hskim@dhu.ac.kr

- 이 논문은 2009년도 대구한의대학교 기린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Daegu Haany University Kylin Foundation in 2009 (Grant No: 2009-901-42).

투고일 2011년 5월 5일 / 수정일 1차: 2011년 6월 8일, 2차: 2011년 6월 18일 /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19일

은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전체 혼인 건수의 13.6%에 이르렀다(Statistics Korea, 2005). 그러나 외국인 간 결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키며 이 중 일부는 의료전문인의 중재를 필요로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고되고 있다(Ahn, Jeon, Hwang, Kim, & Yoon, 2010). 특히 한국 사회는 결혼이주여성을 인신매매와 가정학대의 피해자, 한국인에 의해 교육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그들의 능력을 저평가하는 경향도 있다(Kim, 2010).

한편 대구·경북 지역의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 비율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7.7%, 경상북도가 10.2%로 이는 전국 평균 비율 9.9%와 유사한 수치이나(Statistics Korea, 2006), 지역사회의 보수성을 고려할 때 결혼이주여성들이 느끼는 고립감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타 지역보다 더 높을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Kim, 2008). 200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상당수가 국제결혼 과정의 문제점과 결혼 후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인권침해와 의사소통 문제, 생활 전반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가정이 파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종 정보, 자원, 취업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있다고 한다(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2005). 특히 체류 신분상의 불안, 이로 인한 교육 및 취업 기회의 제한, 빈곤이라는 악순환으로 여성결혼 이민자 가정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의 경제 상태에 처해 있지만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13.7%에 불과하여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2005). 문화적 차이 등에 의한 부부 갈등, 가정 폭력, 시집과의 충돌과 더불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문제로 특히 농촌거주 결혼이주여성의 높은 불임률(25%), 자연유산율(13%) (Kim, 2007) 및 기타 건강문제(Kim, Yoo, Cho, & Kwon, 2010)는 또 다른 부부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 및 생활적응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로 이들의 이혼율의 증가를 들 수 있다. 2004년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 건수는 불과 1년 전인 2003년보다 1,028건이 증가한 1,611건으로 집계되었다(Statistics Korea, 2005). 이는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국적과 상관없이 결혼이민이라는 새로운 문화적응에 공통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일 예이며, 이러한 다양한 생활 스트레스의 누적은 정신건강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우울이나 불안 등

정신병리적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Bhugra, 2003; Huang & Mathers, 2008). 결혼이주를 포함하여 이민과 정신장애 유병률 간의 관계연구(Arieli, Gilat, & Aychel, 1996)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이민자는 우울 28.4%, 불안장애 37.1%, 신체화장애 29.4%의 유병률을 보였으며 이민자의 자살률은 자국민의 자살률보다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민자는 특히 정신건강간호가 필요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Fenta, Hyman과 Noh (2004)는 특히 이민자의 연령, 이민의 동기, 생활 스트레스 사건, 교육 수준, 취업상태 등을 높은 우울 관련 변수로, 사회적, 정서적 지지로 인한 높은 생활만족도와 높은 자아정체성을 우울 예방 변수로 제시하였다.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우울은 단순히 적응상의 문제로 생긴 결과라기보다 적응과정에서 유발된 스트레스와 이에 대응하는 개인내적 자원 및 외적 지지와의 관계 속에서 조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민과 우울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Bhugra, 2003; Huang & Mathers, 2008)에서는 우울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민국에서의 자신이 지각하는 생활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에 주목하여 왔다. Bhugra (2003) 또한 이민자의 정신건강 증진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원만한 가족관계 등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 어려움과 가정생활에서의 고충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농업이 주요산업인 경북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농사일과 가사일을 병행하는 과중한 노동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고충을 달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나 문화적 시설이 거의 없고, 도시와 달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 창구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쉽게 결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결혼이주여성 및 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Jeong et al., 2007)에서도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은 이웃과의 교류 및 사회적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지역 간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의 부족은 결국 낮은 생활 만족도, 사회적 부적응, 우울 등 정신건강 상의 문제로 표출될 수밖에 없으며(Kim, 2010), 이는 지역별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사회지원 서비스의 개발 및 지원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경북의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정신간호학 차원에서의 건강증진 중재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을 조사한다.
-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 및 우울의 정도를 확인한다.
-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를 파악한다.
-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 및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사회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 및 우울을 조사하고, 이들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남성을 남편으로 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 방법은 일차적으로 경상북도 경산시와 대구광역시 소재 보건소와 지역사회 여성회관을 무작위 비례층화 표본추출법에 의해 7개 선정 후 이 기관에 등록된 결혼이주여성 200명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여성을 전수 조사하였다. 따라서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언어적 제한이 심한 경우는 표집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1)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6개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 자, (2)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자, (3) 기초 한국어 과정을 이수한 자이다. 설문조사 후 수집된 설문지 검토를 통하여 무응답 문항이나 부정확한 응답이 많은 설문지는 제외한 후 최종 173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정 대상자 수 분석에서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 크기 .15, 독립변수 4개로 하였을 때 적정 표본수는 107명

으로 산정되어 본 연구는 적정 표본수를 충족하였다(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

3. 연구도구

1) 우울정도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heikh와 Yesavage (1986)가 15개 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 우울척도(Short Form Depression Scale, SDS)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ho, Bae와 Suh (1999)가 번역하여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한국판 Short 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다양한 계층의 대상자에 대한 우울증 검사가 용이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며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에 대해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을 부여하였으며 총 15개 문항 중 5개 문항(1, 5, 7, 11, 13문항)은 역환산하였다. 총 우울점수는 0~15점으로 우울증을 판별하는 절단점은 8점으로 0~4점은 정상, 5~8점은 경증 우울증상, 9점 이상은 우울증으로 평가하였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91$ 이었으며(Cho, Bae, & Suh, 1999) 본 연구에서는 .78로 나타났다.

2)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측정도구는 Neugarten, Havighurst와 Tobin (1961)이 개발한 노인의 생활 만족도 척도(Life Satisfaction Index-z)를 사용하였다. Neugarten 등(1961)은 생활만족도를 생활에 대한 만족수준, 자신의 삶에 대한 수용, 삶의 목표에 대한 성취정도, 긍정적 자아상 및 행복감, 낙관적 태도와 정서에 대한 유지 등 5개 구성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ee (1999)가 번역·보완하고 Kim (2007)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총 13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형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분석 시 부정적인 질문 2개 문항을 역환산하였다. Kim (200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7이었다.

3)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Park (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Kim (2007)이 재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재수정된 사회적 지지 척도는 사회적 지지망의 기능적 속성인 지지제공자,

지지내용, 만족도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각 지지제공자에 대한 지지형태는 정서적, 물질적, 평가적, 정보적 지지로 구분되었다. 총 26개 문항,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많음을 의미한다. Kim (2007)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7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3월 1일부터 7월 31까지였으며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조사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지역 보건소 및 여성회관의 소장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및 진행과정에 대한 브리핑을 한 후 조사대상 기관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었다. 다음으로 이곳 보건소·여성회관 등록 결혼이주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및 연구진행 과정,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를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개인 정보는 비밀 보장이 되며 연구 중에도 연구참여를 거부할 권리와 연구결과는 연구목적만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충분한 이해를 위하여 이상의 내용은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로 통역하였다. 자료수집 과정 중에는 통역사를 통하여 연구대상자가 설문내용을 자신의 모국어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자료수집 종료 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에서도 즉각적 관심이 필요한 연구대상자의 건강 문제 또는 가정문제(가정학대 등)가 발견 되면 심리상담사, 간호사 등 전문가를 통한 서비스 지원 및 이에 대한 중재를 개시함으로써 자료수집과 더불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본주의적 접근을 병행할 계획이었으나 본 조사과정에서 그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지원 서비스 이용현황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 및 우울의 정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정도는 평균, 표준

편차, t-test와 ANOVA로 검증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우울정도, 생활만족도, 사회적 지지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1.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지원 서비스 이용현황

대구·경북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연령별 분포는 20~29세가 67.1%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 거주 기간은 2년 이상 4년 미만 이 33.5%로 가장 많았다. 결혼 전 국적은 베트남이 49.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조선족, 한족) (26.5%)이 많았다. 연구대상자 중 66.5%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중학교 졸업(43.4%)이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불교라고 응답한 경우가 29.5%로 가장 많았다. 가족 월수입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50.9%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 동기는 '잘 사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가 63.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배우자 소개 경로는 국제 결혼 중개업자를 통하여가 74.0%로 가장 높았으며, 94.8%가 초혼으로 응답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82.7%는 가족문제가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나, '모국의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지지' (4.0%), '생활비나 용돈을 주지 않았다' (2.9%)는 답변도 있었다. 결혼 전 들은 남편과 시집에 대한 정보는 '대체로 사실과 일치한다'가 42.2%, '보통이다'가 27.2%로 응답하였다. 현재 자녀수는 1명인 경우가 5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무자녀인 경우로 23.7%였다. 결혼 후 한국 생활 적응에 도움을 준 사람이나 단체로는 남편이 60.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모국인 결혼이주여성 친구가 24.9%로 높은 반면 이주여성 상담센터나 사회복지기관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0.6%에 불과하였다. 대구·경북 지역 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연령별 분포는 40~49세가 61.8%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50.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영업이 14.5%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60.7%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불교인 경우가 23.1%로 가장 많았다(Table 1).

결혼이주 후 이용하였던 사회지원 서비스 현황에 대한 질문에서 이용도가 높은 상위 5개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

Table 1. Socio-demographic Variables of Subjects

(N=17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Range
Age (year)	20~29 30~39 40~49	116 (67.1) 43 (24.9) 14 (8.1)	28.6±6.19	20~49
Length of residence (year)	0~< 2 ≥ 2~< 4 ≥ 4~< 6 ≥ 6~< 8 ≥ 8	30 (17.3) 58 (33.5) 44 (25.4) 24 (13.9) 17 (9.8)	4.9±2.86	1~20
Host country	China (Chosun tribe) China (Han tribe) Japan Philippine Vietnam Mongol Others	7 (4.0) 39 (22.5) 5 (2.9) 5 (2.9) 85 (49.1) 4 (2.3) 28 (16.2)		
Acquisition of Korean nationality	Yes No	58 (33.5) 115 (66.5)		
Economic status	No national economic aid program NBLS NLIS	155 (89.6) 10 (5.8) 8 (4.6)		
Education	No schooling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Post graduate	2 (1.3) 27 (15.6) 75 (43.4) 45 (26.0) 13 (7.5) 10 (5.8) 1 (0.6)		
Religion	Protestant Buddhism Catholic Islam Others None	15 (8.7) 51 (29.5) 6 (3.5) 4 (2.3) 2 (1.2) 95 (54.9)		
Marital status	Married Separated or divorced Widowed Cohabitation	168 (97.1) 1 (0.6) 3 (1.7) 1 (0.6)		
Marital history	First marriage Remarriage	164 (94.8) 9 (5.2)		
Employment status	Employed Unemployed	24 (13.9) 149 (86.1)		
Monthly income (10,000 won)	< 100 ≥ 100~< 200 ≥ 200~< 300 ≥ 300~< 400 ≥ 400 No response	29 (16.8) 88 (50.9) 40 (23.1) 7 (4.0) 1 (0.6) 8 (4.6)		
Reasons for international marriage migration	For economical reason For love For religious reason For family of host country For get a job Others	110 (63.6) 27 (15.6) 5 (2.9) 22 (2.7) 3 (1.7) 6 (3.5)		

NBLS=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NLIS=national low incomer support program.

Table 1. Socio-demographic Variables of Subjects (Continued)

(N=17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Range
Route for meeting with husband	By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128 (74.0)		
	Be arranged or introduced by family members or friends	26 (15.0)		
	By religious affiliation	5 (2.9)		
	Be introduced by oneself	13 (7.5)		
	Others	1 (0.6)		
Family problems	None	143 (82.7)		
	Insufficient living expenses	5 (2.9)		
	Violate a privacy	2 (1.2)		
	Violent behavior	3 (1.7)		
	Checking the financial support to family in one's homeland	7 (4.0)		
	Others	13 (7.5)		
Pre-marital information regarding husband & marriage provided by marriage broker	Nearly true	29 (16.8)		
	Partly true	73 (42.2)		
	So so	47 (27.2)		
	Partly false	23 (13.3)		
	Nearly false	1 (0.6)		
Number of children	None	41 (23.7)		
	1	93 (53.8)		
	2	35 (20.2)		
	3	3 (1.7)		
	3 <	1 (0.6)		
Primary supporter	Husband	105 (60.7)		
	Mother & father in law	10 (5.8)		
	Brother & sister in law	1 (0.6)		
	Friends of host country	43 (24.9)		
	Religious community	1 (0.6)		
	Community social service center for immigrant women	1 (0.6)		
Recognition level of host country & their culture by Korean	Others	12 (6.9)		
	Very low	14 (8.1)		
	Low	56 (32.4)		
	So so	55 (31.8)		
	High	41 (23.7)		
	Very high	7 (4.0)		
Spouse's age	< 39	52 (30.1)	42.2±5.20	25~57
	40 ≤ ~ < 49	107 (61.8)		
	50 ≤	14 (8.1)		
Spouse's occupation	Agriculture	12 (6.9)		
	Architecture	3 (1.7)		
	Self-employed business	25 (14.5)		
	Labor	88 (50.9)		
	Office work or Management	9 (5.2)		
	Others	36 (20.8)		
Spouse's education	Elementary school	9 (5.2)		
	Middle school	34 (19.7)		
	High school	105 (60.7)		
	College	10 (5.8)		
	University	11 (6.4)		
	Postgraduate	4 (2.3)		
Spouse's religion	Protestant	13 (7.5)		
	Buddhism	40 (23.1)		
	Catholic	5 (2.9)		
	Others	3 (1.7)		
	None	112 (64.7)		

육(83.8%), 한국문화 풍습(요리, 예절 교육 등) (75.1%), 건강 보험(62.4%), 보육서비스(39.3%), 국적 취득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 프로그램(27.7%) 순이었다. 한편 5.2%가 어떠한 서비스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정신건강 상담지원 서비스 이용률도 2.9%에 불과하였다. 한편 사회지원 서비스 이용 시 느꼈던 어려움으로 ‘서비스 기관 직원과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가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높은 항목은 ‘서비스 기관을 찾기 어려워서’(44.5%), ‘나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찾기 어려워서’(44.5%),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이용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36.4%), ‘기관 직원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서비스 내용과 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31.8%)가 높게 나타났다.

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 및 우울의 정도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 및 우울의 평균, 표준편차, 응답 점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Table 2). 우울은 평균 3.5점이었으며 최소 0점, 최대 12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평균점수는 78.7점이었으며 각 하부척도의 평균은 물질적 지지 18.3점, 정서적 지지 22.4점, 정보적 지지 18.6점, 평가적 지지 19.3점이었다. 사회적 지지의 점수분포는 최소 26점, 최대 125점이었다. 생활만족도의 평균점수는 43.3점이었으며 최소 28점, 최대 65점의 분포를 보였다. 또한 우울점수 5점 이상인 집단과 5점 미만인 집단으로 나누어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

대구·경북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선행연구(Beiser, 1990)에서 제시한 우울 관련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우울정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족 월수입($F=1.84, p=.004$)과 자신의 모국과 모국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도($F=5.02, p=.008$)에 따라 우울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cheffé test 결과, 월수입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00~300만원보다 우울정도가 높았으며, 100~300만원인 경우는 300만원 이상인 집단보다 우울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이 자신의 모국과 모국 문화에 대하여 높은 인지도를 보인다고 응답한 여성은 인지도가 낮다고 응답한 여성보다 유의하게 낮은 우울정도를 보였다(Table 3).

4. 우울, 생활만족도, 사회적 지지간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든 변수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구변수 중 우울정도는 사회적 지지($r=-.38$) 및 생활만족도($r=-.49$)와 $p<.001$ 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사회적 지지는 생활만족도($r=.58, p<.001$)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4).

5.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구·경북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우울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월수입, 모국문화에 대한 이해도(Table 3)와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잔차분석, 영향력 진단, 다중공선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오차항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한 잔차분석 검정을 실시한 결과 Durbin-Watson

Table 2. Major Variables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Depression

(N=173)

Variables	Total	Range	Depression		t	p
	M±SD		less than 5 (n=119)	5 or more (n=54)		
			M±SD	M±SD		
Social support	78.7±15.26	26~125	81.8±12.08	71.9±19.11	3.42	<.001
Physical support	18.3±3.69	7~30	18.9±3.07	16.9±4.51	2.94	.004
Emotional support	22.4±4.46	7~35	23.3±3.51	20.5±5.06	3.27	.002
Informative support	18.6±3.90	6~30	19.3±3.28	17.1±4.67	3.13	.002
Appraisal support	19.3±3.81	6~30	20.2±3.14	17.5±4.52	3.86	<.001
Life satisfaction	43.3±6.82	28~65	45.3±6.41	38.7±5.38	6.49	<.001
Depression	3.5±3.05	0~12	1.7±1.32	7.4±2.05	-18.46	<.001

Table 3. Differences in Depression by Socio-demographic Variables among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N=173)

Characteristics	Categories	Depression			
		M±SD	t or F	p	Scheffé
Age (year)	20~29	3.4±3.08	0.26	.772	
	30~39	3.7±2.93			
	40~49	3.7±3.38			
Length of residence (year)	0~<2	3.1±2.64	0.47	.756	
	≥2~<4	3.4±2.99			
	≥4~<6	3.3±3.34			
	≥6~<8	4.1±3.35			
	≥8	3.8±2.89			
Acquisition of Korean nationality	Yes	3.5±3.11	0.17	.868	
	No	3.5±3.03			
Education	Elementary school	4.3±3.36	1.88	.135	
	Middle school	3.2±3.07			
	High school	3.9±2.80			
	College & university	2.7±2.89			
Religion	Protestant	2.1±2.21	2.66	.050	
	Buddhism	2.9±2.86			
	Catholic & islam	3.1±2.96			
	None	4.0±3.19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a	4.4±3.04	1.84	.004	a > b > c
	≥100~<200 ^b	3.4±3.04			
	≥200~<300 ^b	3.6±3.39			
	≥300 ^c	2.3±1.69			
Recognition level of host country and their culture by Korean	Low ^a	4.2±3.39	5.02	.008	a > c
	Medium ^b	3.4±2.85			
	High ^c	2.5±2.44			

Table 4. Correlations among the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N=173)

Variables	Depression	Social support
	r (p)	r (p)
Social support	-.38 (<.001)	
Life satisfaction	-.49 (<.001)	.58 (<.001)

Table 5. Predictors of Depression in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N=173)

Variables	β	t	p	Cum. R ²
Life satisfaction	-.38	-4.54	<.001	.254
Social support	-.21	-2.49	.014	.281
Adj. R ² =.278, F=31.72, p<.001				

값이 1.536으로 나타나 2에 가까우므로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였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이 1.036~5.182로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영향력 진단을 위한 Cook's D 검정 결과에서는 모든 측정치가 .000~.119로 나타나 1.0 이상인 개체가 없기 때문에 모형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31.72, $p<.001$), 유의수준 .05에서 우울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생활만족도($\beta=-.38$, $t=-4.54$, $p<.001$), 사회적 지지($\beta=-.21$, $t=-2.49$, $p=.014$)로, 이들 변수의 우울에 대한 설명력은 27.8%였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과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들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구·경북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전 국적은 베트남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조선족, 한족)이 많았으나, Kim 등(2010)은 전국 결혼이주여성의 국적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중국(조선족, 한족)이 가장 많

은 것으로 보고하여, 대구·경북 지역이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대구·경북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은 20~29세가 가장 많았으며 전국 평균에서도 25~29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거주 기간은 2년 이상 4년 미만이 33.5%로 가장 많았으며 전국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도 2년 이상 5년 미만이 36.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기혼상태 여성은 97.1%인 반면 전국 평균은 95.2%로 대구·경북 지역 거주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 유지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교육 수준은 본 연구에서는 중졸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전국 조사에서는 고졸이 가장 높게 나타나 지역 간 학력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는 출신국에 따른 교육수준에 대한 선행연구(Kim et al., 2010)에서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고졸 출신이 가장 많은 반면 베트남 출신 여성의 경우는 중졸이 가장 많아 베트남 이주여성이 많은 경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구·경북 지역과 전국 모두에서 가족 월 수입은 100~200만원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5.8%, 차상위계층 4.6%로 나타나 이들의 경제적 취약성을 알 수 있었다. 남편 소개 경로는 대구·경북 지역은 결혼중개업체가 가장 많은 반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친구 및 동료의 소개가 결혼중개업체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 평균에서는 결혼중개업체가 가장 많은 배우자 소개 경로로 나타났다. 배우자 직업에 대한 답변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단순노무직이 가장 많은 반면 전국 평균은 기능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서울의 경우는 단순노무직과 함께 서비스직이 공동 1위를 차지하였으며,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경남 등의 산업화 도시에서는 기능직이 가장 많은 반면,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은 농어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배우자 직종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결혼이주여성의 현 배우자와의 현존 자녀수는 본 연구에서는 1명이 가장 많았으나 전국 평균은 무자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은 무자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한 자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구·경북 지역 결혼이주여성과 전국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여성의 학력이나 남편 소개 경로, 남편의 직업 등에 차이를 엿볼 수 있어 결혼이주여성 대상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 운영 시 이러한 격차를 반

영하였을 때 보다 효과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대구·경북 지역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많이 이용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풍습(한식 조리법, 전통 예절 등), 건강보험제도, 보육 서비스 및 국적취득 관련 지원 서비스로 한국에서의 정착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집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83.8%가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나 이들의 한국어 수준은 실생활에 적용하는 데는 부족한 수준이었다. 이는 미국 이민 한국 여성 대상 연구에서도 이들 이민 여성이 극복하기 힘든 영어 구사와 이로 인한 힘겨운 자녀 양육, 자녀 교육,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원이었음을 보여준 Ahn (2007)의 연구와도 유사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시 어려움도 의사소통 문제, '서비스 기관을 찾아가기 어려워', '나에게 맞는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집약할 수 있어 역시 의사소통은 모든 이민자에게 가장 큰 문제임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45.4%의 여성이 경증 우울증상을 보였으며 이중 우울증으로 판별할 수 있는 우울점수 9점 이상인 여성도 9.2%로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인의 평생 우울증 발병률이 연구마다 상이하나 2.9~5.6%로 보고됨을 볼 때 (Cho et al., 2009), 본 연구에서 우울증을 보이는 대상자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Yang과 Kim (2007)의 연구에서는 서울 거주 결혼이주 여성의 26.9%가 보통 이상의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우울증 측정 도구가 연구마다 상이하여 이들 수치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이 내국인보다 높은 수준임을 시사한다. Hoschl 등(2008)도 이민자들은 경제적으로 보다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이민하였지만, 언어, 종교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이민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우울증, 약물남용, 알코올 중독증 및 자살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63.6%의 여성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단행하였으나 이들 여성 중 45.4%가 경증도 이상의 우울증상을 보여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들 결혼이주여성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정도는 낮았고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Kim, 2007)에서도 이러한 결과는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으며 Lim (2010) 또한 사회적 지지는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바람직한 사회적 기능수행을 돕는 자원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Han (2007)은 사회적 지

지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효능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함으로써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사회부적응은 정신건강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우울, 불안 등의 다양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생활만족도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설명력은 27.8%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만족도는 25.4%의 설명력을 보여 사회적 지지보다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물질, 정보, 정서 차원에서 사회적 지지의 많고 적음 보다 결국 본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생활만족도가 우울의 주요 예측요인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외국의 선행연구(Bhugra, 2003, 2004; Fenta et al., 2004; Huang & Mathers, 2008)에서도 생활만족도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민자의 우울 관련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생활만족도(Kim, 2007), 사회적 지지(Lim, 2010)는 자아존중감, 원만한 가족관계와 더불어 우울감소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 특히 Bae와 Park (2010)은 미국이민 한국인에 대한 연구에서 이민자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민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조직과 정보 제공으로 이민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이민 사회에 성공적인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나 자조집단의 결성도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리라 보며 한국인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뿐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이 주체가 되는 자조집단이나 사회적 지지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문화적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 극복을 도울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이주여성의 우울 관련 변수였던 월수입과 한국인의 모국문화 이해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 도시, 농촌 간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상 차이를 엿볼 수 있어 향후 이주여성 대상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대상자는 지역사회 보건소나 여성문화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이러한 사회적 지지망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외 여성을 포착하여 이들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 변수의 측정을 위하여 문화 특수성이 반영된 도구 개발 관련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 보건소와 여성회관에 등록된 결혼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둘째, 본 연구의 자료수집방법은 설문지 조사방법으로 통역보조원을 대동하였다 할지라도 연구대상자의 교육배경이나 이 문화권에서의 생활경험으로 설문내용 이해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개인적 문제의 노출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 답변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결과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구·경북 지역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지원 서비스 이용현황, 이들 여성의 우울,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들 변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역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향후 이주여성 대상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지원 서비스는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풍습(한식 조리법, 전통 예절 등) 등 이민국가 위주의 내용으로 상대방 국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가 이들 여성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지역별 특성에 근거한 사회지원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이들의 우울 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이민자의 정신건강 관련 변수 중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던 문화정체성, 문화변용(acculturation), 문화적응 스트레스 개념을 포함한 심도 깊은 추후 연구와 이를 근거로 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hn, O. H., Jeon, M. S., Hwang, Y. Y., Kim, K. A., & Yoon, M. S. (2010). An analysis of articles for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related to health.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gricultural Medicine & Community Health*, 35(2), 134-150.

- Ahn, H. R. (2007). The experience of Korean-American women's acculturative str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6, 160-173.
- Arieli, A., Gilat, I., & Aycheh, S. (1996). Suicide among Ethiopian Jews: A survey conducted by means of a psychological autops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4, 317-319.
- Bae, J., & Park, H. (2010). Depression and the influencing factors in Korean American immigra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9, 67-75.
- Beiser, M. (1990). Migration: Opportunity or mental health risk. *Triangle*, 29(2/3), 83-90.
- Bhugra, D. (2003). Migration and depression.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8(Suppl. 418), 67-72.
- Cho, M. J., Bae, J. N., & Suh, K. H. (1999). Diagnostic validity study for Korean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8, 48-63.
- Cho, M. J., Chang, S. M., Hahm, B. J., Chung, I. W., Bae, A., Lee, Y. M., et al. (2009).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major mental disorders among Korean adults: A 2006 National epidemiologic survey.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8, 143-152.
-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 Lang, A-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 1149-1160.
- Fenta, H., Hyman, I., & Noh, S. (2004). Determinants of depression among Ethiopian immigrants and refugees in Toronto.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2, 363-372.
- Han, J. E. (2007). *The effect of acculturation and social support on the child rearing efficiency of immigrant mothers for marri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Hoschl, C., Ruiz, P., Casas, M., Musalek, M., Gaebel, W., & Vavrusova, L. (2008). The impact of migration on mental health and mental illness. *European Psychiatry*, 23, S42.
- Huang, Y. C., & Mathers, N. J. (2008). Postnatal depression and the experience of South Asian marriage migrant women in Taiwan: Survey and semi-structured interview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5, 924-931.
- Jeong, G. S., Kim, Y. H., Park, K. E., Lee, E. A., Park, J. H., Lee, S. A., et al. (2007). *Current status and Policy development for social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living in Kyeonggido*. Kyeonggido: Kyeonggido Family & Women's Research Institute.
- Kim, H., Yoo, S., Cho, S., & Kwon, E.-J. (2010). Health status and associated health risks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 Promotion*, 27(5), 79-89.
- Kim, H. S. (2008).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4(4), 248-256.
- Kim, H. S. (2010). Social integration and health policy issues for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South Korea. *Public Health Nursing*, 27, 561-570.
- Kim, N. Y. (2007). *A study on life satisfaction about international marriage of women immigrants: Focus on social support and social particip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S. K., Kim, Y. K., Cho, A. J., Kim, H. R., Lee, H. K., Seol, D. H., et al. (2010). *Survey on multi-culture family in South Korea*.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Korea Institute for Health & Social Affairs.
- Kwon, K. Y., & Park, K. W. (2007). Factors influencing on mental health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mong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living in Jeollanamdo. *Korean Sociology Research*, 14, 187-219.
- Lee, C. E. (199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sex life and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Lee, S. J., Kim, Y. H., & Choi, J. S. (2005). *A study on globalization and migration of women in Asia*.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Lim, H. S. (2010). The impact of acculturative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in Korea: An examination of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5(2), 27-45.
-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2005). *The reality of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tion and support policies for their health and social welfare of the Korean government*. Seoul: Author.
-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2), 134-143.
- Park, J. W. (1985).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suppor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Sheikh, J. I., & Yesavage, J. A. (1986).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 Recent evidence and development of a shorter version. In T. L. Brink (Ed.), *Clinical gerontology: A guide to assessment and intervention* (pp. 165-173). NY: The Haworth Press.
- Statistics Korea (2005). *Statistics of immigrants in Republic of Korea*. Retrieved June 14, 2011, from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 Statistics Korea (2006). *Korean census*. Retrieved June 14, 2011, from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 Yang, O. K., & Kim, Y. S. (2007). A study on the effects of depressiveness among foreign wives through marriage migrati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26, 79-110.